정교회주보

제2496호

2024.10.27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성 안토니오스 수도원은 미국 애리조나주 플로렌스 지역의 소노라 사막에 자리하고 있다. 1995년, 여섯 명의 수도자가 설립하여 성 안토니오스 대수도자의 이름으로 봉헌하였다. 에프렘 초대 수도원장은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4곳을 복원하였으며, 그리스와 북미 지역 여러 곳에 수도원을 설립한 영적 스승이었다. 현재 수도원에는 40여 명의 수도자가 있다.

루가 제7주일
성 네스토르 순교자
(제1조 •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 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 사도경 : 고린토 후 9,6~11 (봉)272
- 복음경 : 루가 8,41~56 …… 127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 아들아, 먼저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려라.
주님,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내 아들아,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단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바칩니다. 내 마음, 나의 존재 전체를 받아주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면 이제,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네가 상상할 수 있거나 갈망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하는 십자가를 져라.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십자가라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들을 짊어질 힘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성초의 상징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많은 사람들이 정교회 예배에서 사용하는 성초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초를 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관습일까요, 아니면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거룩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저 형식적으로, 중요성이나 의미 없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초를 켜는 것도 깊은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그저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 초는 먼저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을 밝혀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참된 빛"(1시과 기도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밝고 거룩해야 합니다.

2. 불이 켜진 촛불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참된 빛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반짝이는 것들에서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불이 켜진 촛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마태오 5,14).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촛불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희생의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가르쳐줍니다. 초가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고, 스스로를 태우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희생이란 우리 의지가 촛불처럼 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촛불처럼 녹아내려야 함을 뜻합니다.

4.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며 켜는 성초는 또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봉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시편 116,12) 촛불, 향, 성찬례를 위한 빵과 포도주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당신의 것인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특히 이 예물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당신께 바치나이다"라고 우리가 매 성찬예배 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5. 성초를 켜면서 우리는 세례성사 때 받은 영적인 빛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성사는 '빛 비추임'이라고도 불립니다. 세례 중에 우리가 켜진 촛불을 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오 5,16) 또한, 우리가 세례를 통해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선교의 의무를 상기시켜 줍니다.

6.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나 추도식 때 들고 있는 촛불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며, 고인이 그 빛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 성초의 빛은 오순절의 불, 성령의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특히 성찬예배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찬예배가 끝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빛을 보았고, 하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 6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오 거룩한 자선이여!!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낙원을 팔려고 찾아와 말합니다.

"저에게 밥을 조금만 주시고 천국을 가지세요."

"저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하늘 왕국을 가지세요."

"저에게 돈을 좀 주시고 천사들의 기쁨을 받으세요."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밥 한 그릇을 나눠줍니다. 밥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십시오.

가진 돈이 없다면, 옷이라도 줍시다. 한 잔의 물이라도 줍시다. 뭐라도 먹을 것을 좀 줍시다. 무엇이든지 그냥 나눠줍시다...

주고 천국을 삽시다!

그리스도를 옷입힙시다. 그러면 심판날에 그분이 당신을 옷입힐 것입니다.

헐벗은 당신의 자매, 형제를 덮어줍시다. 그러면 심판의 날에 그들 또한 당신을 덮어서 감싸줄 것입니다.

오 거룩한 자선이여! 당신이 자선을 베풀면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천배나 많은 자선을 입을 것입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407년 안식)

영혼이 공허한 사람은 남을 비판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모든 실패에 대한 탓을 할 사람 한 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무엇인가 추하고 흉한 것을 발견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의 입은 악한 것을 위한 스피커 같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잘생기고 착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상대방에게서 무엇인가 흠을 발견하거나 적어도 누군가 죄가 있는 그(착한 사람)의 친척 한 명을 찾으려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악을 발견하려는 성향과 기질에서 스스로가 벗어나도록 힘쓰십시오. 악이 둥지를 트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의 악이 분명해지고 옅어질 때까지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몰아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고나면 이 세상의 악은 더 약해보이고,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말은 더 아름다운 말이 됩니다. 우리를 서로서로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때 말은 좋은 것이며, 우리를 서로 갈라놓을 때 말은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국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마태오 12,34)이기 때문입니다.

– 스테판 사바티에 바스토보이

(1976–, 몰도바의 수도사제, 작가)

주간 예배 안내

* 11월 1일(금)
성 코즈마스, 성 다미아노스
자선 치료자들과
모친 성 테오도티 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알 림

▦ 인천 성당 신자들의 가평 수도원 방문

지난 19일(토), 부인회, 청장년회, 주일학교 학생들 등 20여 명의 신자들이 수도원을 방문하여 성모님께 드리는 기원의식을 드리고, 소티리오스 대주교 묘소에서 고인을 추모했으며, 수도원 안팎 청소 및 정리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산책을 통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서울 성당 세계 음식 축제

지난 주일(20일)에 열렸던 '먼나라 이웃나라 음식 축제'는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그리스, 러시아, 미국, 벨라루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정교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다채로운 고유 음식이 판매되었고, 방문객들에게 정교회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축제 준비와 운영을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부산 성당 가을 야유회

지난 주일(20일), 신자들과 함께 삼락 생태공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점심식사도 나누고, 다양한 운동경기를 하면서 교인들 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전주 성당 가을 야유회

지난 주일(20일), 성찬예배 후에 성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익산 천만 송이 국화축제>로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분 좋은 가을 날씨 속에 다양하게 꾸며진 국화들을 보면서 귀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성의 샘터

영적 열매를 맺으려면...

피민 사부가 말했다.

"말이 많은 것과 다툼, 불안, 혼란을 피하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감싸주신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메말라 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영적 열매를 맺게 된다."